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자원부)

## I.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과 비전

반세기동안 국민의 합심된 노력과 활발한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79불('60년)의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강국('02년GDP기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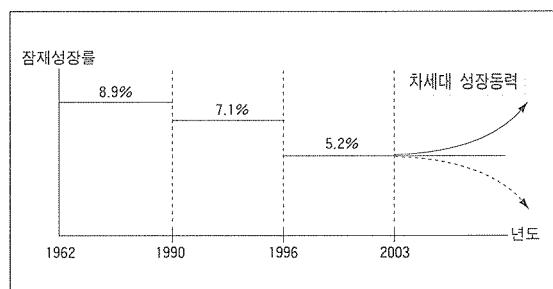
그러나, 8년간 국민소득 1만불에 끓여 있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후  
발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5~10년내에 2만불로 도약하였다. 싱가풀은 5년(89→94), 일본은 6년(81→87), 영국은 9년(87→96), 미국은 10년(78→88)이 걸렸다.

지식정보 혁명, 글로벌 경제체제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 주력산업과의 경쟁격화로 우리경제  
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대되고 있다

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5~10년후 우리경제의 베풀목으로 삼고, 6 T 등 신기술 개발노력과 함께 이를 전통산업에 접목시켜 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1.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전략과 비전

과거의 성장전략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을 증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은 R&D투자·인력양성 등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정책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선순환 발전시켜 국민

소득 2만불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민소득 2만불시대

#### - 5~10년후 경제성장 견인 -

- ▶ 세계시장규모(억불) : (03)15,187 ⇒ ('07)22,679 ⇒ ('12)32,595
- ▶ 부가가치생산(조원) : (03)67.3 ⇒ ('07)99 ⇒ ('12)169
- ▶ 수출규모(억불) : (03)721.6 ⇒ ('07)1,213 ⇒ ('12)2,519
- ▶ 고용창출(만명) : (03)94.3 ⇒ ('07)142 ⇒ ('12)241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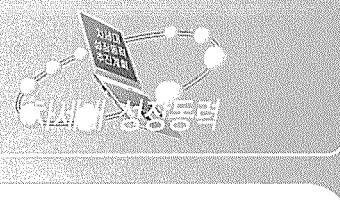
#### -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

- |             |                 |
|-------------|-----------------|
| • 디지털 TV/방송 | • 차세대 이동통신      |
| • 디스플레이     | • 지능형 홈 네트워크    |
| • 지능형 로봇    | •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
| • 미래형 자동차   | • 차세대 전지        |
| • 차세대 반도체   | • 바이오 신약/장기     |



### 추진 전략

- ▶ 노동·자본투입 주도형에서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전환
- ▶ 민간·정부간 전략적 협조체제 구축
  - 민간 : 신기술개발 및 초일류상품 생산
  - 정부 : R&D관련 인프라 개선(R&D투자확대, 핵심인력양성 등)
-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 II.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태적인  
비교우위 확보



세계시장 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 변화추세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산업 파급효과
---------	---------	------------	------------	------------

### 1. 산업별 현황 및 전망

#### (1) 디지털 TV/방송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와 디지털 TV방송의 본격화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 간 경쟁이 치열</li> <li>디지털 TV 세계시장은 '12년까지 연평균 25.7% 고성장 전망</li> </ul>
전략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디지털 방송시대의 핵심기기로 이의 기술력 확보여부가 향후 세계 전자시장의 주도권을 결정</li> </ul>
주요 구성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li> </ul>
시장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 272억불 → (07) 783억불 → (12) 2,136억불</li> </ul>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94년 이후 선도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디지털 TV 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및 TFT-LCD 등 일부 핵심부품에서까지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TFT-LCD : 35.9%, 메모리반도체 : 44.8%, PDP:20.8%, PCB : 5.0%)
- 수상기 관련 국제특허 150여건, MPEG-2 응용특허 100여건 보유 및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등 원천기술 다수 보유

##### 다. 2012 전망 : 세계시장의 20%를 석권

부가가치 생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 1.53조원 → (07) 7.13조원 → (12) 24.36조원</li> </ul>
수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 30.3억불 → (07) 155억불 → (12) 447억불</li> </ul>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 6.1만명 → (07) 19.8만명 → (12) 58만명</li> </ul>

#### (2) 디스플레이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의 디지털화, 소비의 고급화와 함께 LCD, PDP 등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수요 급팽창</li> <li>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 경쟁 격화</li> </ul>
전략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소재 등 후방산업과 휴대폰, 디지털 TV 등 전방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li> </ul>
주요 구성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소재</li> </ul>
시장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 616억불 → (07) 906억불 → (12) 1,400억불</li> </ul>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TFT-LCD 등 분야는 이미 세계 1위이고 유기EL도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양산체제 구축 등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성 큼
  -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 장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
- 특히 디지털 TV, 컴퓨터, 휴대폰 등 세계적 수준의 전방산업 보유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

#### 다. 2012 전망 :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도약

부가가치 생산액	○(03) 3.8조원 → (07) 9.5조원 → (12) 24.2조원
수출규모	○(03) 107억불 → (07) 186억불 → (12) 370억불
고용창출	○(03) 7만명 → (07) 13만명 → (12) 18만명

#### (3) 지능형 로봇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 기존의 산업용로봇에 모바일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첨단 지능형 로봇이 시장주도 ○ 극한작업용, 의료용 등 새로운 용도의 로봇과 “1가구 1로봇” 시대에 대비한 가정용 로봇이 거래시장으로 부각
전략적 중요성	○ 자동차 이상의 전후방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2020년경에는 자동차시장의 규모를 능가하는 거대 산업 ○ 기계·전자·통신·제어 등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의 총아로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50%대의 부가가치율)
주요 구성품목	○ 가정용 서비스 로봇, IT기반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시장규모	○(03) 1,000억불 → (07) 1,500억불 → (12) 2,500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원천기술은 아직 선진국과 5~8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력 있는 생산기술, 높은 수요, 선도적인 IT기반 등 산업화 여건은 양호
  - 산업규모 세계 6위, 로봇 사용대수 세계 5위, 로봇밀도 세계 2위
- 특히 일부업체는 자체적인 로봇설계기술을 갖추고 생산·수출을 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로봇기술력 확보

#### 다. 2012 전망 : 세계 3위의 경쟁력 확보로 세계시장 10% 점유

부가가치 생산액	○(03) 0.15조원 → (07) 0.75조원 → (12) 8.0조원
수출규모	○(03) 0.5억불 → (07) 5.0억불 → (12) 100억불
고용창출	○(03) 0.1만명 → (07) 0.4만명 → (12) 2.0만명

#### (4) 미래형 자동차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 에너지문제와 환경·안전규제 강화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강국들간에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 ○ 인공지능 및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운전자편의정보제공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지능화가 크게 진전
전략적 중요성	○ 수출·고용와 함께 막대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 ○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주요 구성품목	○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시장규모	○(03) 8,465억불 → (07) 9,692억불 → (12) 10,714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세계 6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서 선진 자동차 생산기술력 확보

○ 자동차용 미래 신기술 개발에 선진 메이커가 먼저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로 가능성 충분

다. 2012 전망 : 세계 4대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

부가가치 생산액	○ (03) 32조원 → (07) 46조원 → (12) 74조원
수출규모	○ (03) 163억불 → (07) 250억불 → (12) 365억불
고용창출	○ (03) 21만명 → (07) 24만명 → (12) 27만명

#### (5) 차세대 반도체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주체	○ 2005년경부터 PC 이외의 전자제품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이 본격화 ○ 디지털기기의 융합화로 SoC에 대한 수요 폭발 - 운용시스템의 95%가 SoC로 구현
전략적 중요성	○ 현재의 단순 메모리 시스템 기술은 5~6년 후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 ○ 다양한 시스템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기기 및 비즈니스의 창출을 주도(인공지능, e-Car 등)
주요 구성품목	○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시장규모	○ (03) 1,680억불 → (07) 2,519억불 → (12) 4,179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SoC 등 비메모리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 핵심 설계기술 등 원천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

○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제조 기반과 선도적인 IT 인프라와 시스템 산업의 발달로 적극의 투자만 있으면 경쟁력 확보 가능성은 충분

다. 2012 전망 : 메모리 1위, SoC 3위 등 반도체 최강국 도약

부가가치 생산액	○ (03) 10조원 → (07) 25조원 → (12) 50조원
수출규모	○ (03) 200억불 → (07) 350억불 → (12) 500억불
고용창출	○ (03) 1만명 → (07) 3만명 → (12) 5만명

#### (6) 차세대 이동통신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주체	○ IMT-2000 등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고속·고품질로 제공하는 광대역 유·무선 통합망 구조로 전환 ○ 운전자와 텁승자에게 교통안내,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텔레메티ックス 서비스·기술이 자동차산업의 핵심 경쟁요소로 등장
전략적 중요성	○ 향후 표준화 등 세계 IT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핵심역량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필요 ○ 방송·통신융합을 포함 모든 산업에서의 IT기술 활용확대로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위치
주요 구성품목	○ 4G 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메티克斯
시장규모	○ (03) 1,297억불 → (07) 2,037억불 → (12) 2,641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CDMA 상용화를 통해 세계 이동통신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성, 첨단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 세계적인 IT인프라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경우 차세대 무선통신분야에서 세계시장 선점 가능

#### 다. 2012 전망 : 이동통신 분야에서 “Global Leadership” 확보

부가가치 생산액	○ (03) 11.7조원 → (07) 20.9조원 → (12) 25.8조원
수출규모	○ (03) 138억불 → (07) 228억불 → (12) 327억불
고용창출	○ (03) 40.6만명 → (07) 72.4만명 → (12) 89.1만명

#### (7) 지능형 홈 네트워크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통신·건축·휴먼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토탈서비스로 산업화가 가속</li> <li>○ 정보화, 노령화 및 삶의질에 대한 욕구증대와 함께 디지털라이프 확산을 기반으로 2012년까지 연평균 22.4% 고성장 전망</li> </ul>
전략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산업으로 표준화 주도 등 시장선점 필요성</li> <li>○ 중국 등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겨냥한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li> </ul>
주요 구성품목	○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장규모	○ (03) 612억불 → (07) 2,627억불 → (12) 3,791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등에 비해 아직 열위이나 산업화는 초기단계로 대등한 수준
- 세계적인 디지털기기 제조기술과 초고속 IT 인프라, 그리고 높은 아파트 보급율과 밀집형 주거형태 등 산업화 기반은 가장 유리

#### 다. 2012 전망 : 신속한 시장선점과 국제 표준화 주도로 세계 2위 확보

부가가치 생산액	○ (03) 2,7조원 → (07) 11.16조원 → (12) 37.0조원
수출규모	○ (03) 69.9억불 → (07) 285억불 → (12) 822억불
고용창출	○ (03) 11만명 → (07) 31만명 → (12) 88만명

#### (8)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기술과 문학,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화 및 실감·지능형 콘텐츠 발전 전망</li> <li>○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익모델 개발로 e-Marketplace 활성화 등 e-Business 규모가 크게 확대</li> <li>○ SW 역시 단순기능제공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li> </ul>
전략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계비용이 0인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시장규모가 무한대</li> <li>○ 지식정보사회에서 관련 Hardware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li> </ul>
주요 구성품목	○ 디지털콘텐츠 제작·이용·유통시스템, 문화콘텐츠, 임베디드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시장규모	○ (03) 627억불 → (07) 1,266억불 → (12) 2,563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선진 IT 산업 및 다양한 Hardware, 디지털방송 분격화에 따른 풍부한 수요 등 콘텐츠 및 SW산업의 발전기반은 구축
- 기존의 투자로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하고 있고, e-Business에서도 기업의 정보화 추진으로 기본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 큼

#### 다. 2012 전망 :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 동북아의 e-Business 혁신국가 도약

부가가치 생산액	○ (03) 3,52조원 → (07) 13.5조원 → (12) 38.8 조원
수출규모	○ (03) 4억불 → (07) 20억불 → (12) 126억 불
고용창출	○ (03) 6만명 → (07) 23.4만명 → (12) 67만명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2차전지는 99년 상용화로 이미 초기경쟁력을 확보하였고, 현재 일본과 시장확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
- 연료전지의 경우 선진국과 약 5년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연구개발에 집중할 경우 10년이내에 세계 일류로 성장가능

#### 다. 2012 전망 : 2차전지 세계 1위 확보 및 연료전지 분야

부가가치 생산액	○ (03) 0.5조원 → (07) 4.7조원 → (12) 14.6조 원
수출규모	○ (03) 1.5억불 → (07) 54억불 → (12) 255 억불
고용창출	○ (03) 0.7만명 → (07) 4.6만명 → (12) 7.6만명

#### (9) 차세대 전지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문제로 무공해 차세대 전지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전략적 중요성	○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극복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 ○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미래투자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
주요 구성품목	○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시장규모	○ (03) 63억불 → (07) 530억불 → (12) 1,340억불

#### (10) 바이오 신약/장기

#####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 IT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Bio-칩, Bio-인포메틱스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 세계적인 투자초점이 기초·기반연구에서 “산업화”로 급속히 이동중
전략적 중요성	○ 바이오 산업중 부가가치 창출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분야(전체산업의 70% 차지) ○ 보건·환경·농업 등 전산업에 대한 기술파급 막대
주요 구성품목	○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시장규모	○ (03) 555억불 → (07) 819억불 → (12) 1,331억불

##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신약개발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60~70% 수준이나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전략적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서는 앞설 수 있는 가능성

○ 특히 바이오장기의 경우 동물 복제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핵심적인 기술역량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시장선도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

## 다. 2012 전망 : 바이오산업 세계 7위권 진입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

부가가치 생산액	○ (03) 1.4조원 → (07) 5.9조원 → (12) 15.9조원
수출규모	○ (03) 7.4억불 → (07) 44.3억불 → (12) 97.4억불
고용창출	○ (03) 0.8만명 → (07) 4.5만명 → (12) 9.7만명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초석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80% 이상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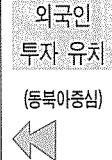


## 차세대 성장동력의 초기 산업화에 역량 집중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04~'08)-	
지역산업과 연계 (국가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의 확충</li> <li>▶ 응용·산업기술개발 효율성 제고</li> <li>▶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li> <li>▶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연계</li> </ul>
외국인 투자 유치 (동북아중심)	

##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나. 중점 추진 과제

##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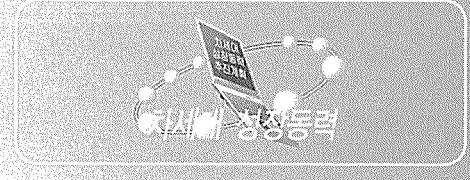
○ 인적자원 및 인프라 확충 → 기술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 세계일류상품 개발'로 이어지는 R&D 전주기의 '혁신시스템' 구축

##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의 확충

산업기술대학교의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

## 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전략

산자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산업담당 주무부처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에 매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을 선도한다.



산하여 「산·학 협력 중심대학」 구축한다.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 인근의 산업대·전문대 등 활용하고, '04년부터 5년간 총 1,50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및 연구기반 구축 지원하고 현장실습학점제 등을 의무화 한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혁신인력양성을 확대('04~'08년간 1,500억원)하고, 대학과 산업현장이 밀착된 “1사 1전담 교수제”, “산업기술지원단”사업을 추진('04~'08년간 300억원)한다.

금년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03)9개에서 ('07)100개 대학으로 공학교육 인증제도 확대한다.

(’03)20개에서 (’07)80개 대학으로 졸업종합설계(Capstone-Design)사업 확대한다.

####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원천기술(과기부) 및 정보통신기술(정통부) 등과 연계하여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10대 산업의 산업기술개발을 ('03)960억원에서 ('07)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10대 산업별로 산업계 중심의 추진사업단 구

성·추진하여 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협조시험 방식도 도입한다.

개발된 기술의 이전·확산·사업화 활성화 지원하여, 지역별 기술거래 이전망 구축, 기술 가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제조업의 IT 접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정보화를 촉진한다.

세부기술·제품에 대한 표준·시험평가·특허 기반을 강화한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현 22.6개월 → 12개월 이내)하여 지적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로 기술개발 투자 의욕을 고취한다.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디자인  
브랜드 혁신을 지원한다

권역별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및 1사 1디자이너 사업을 전개한다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인력 및 연구소 유치기반을 확충한다.

(2)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 ◇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 및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규제(공장입지, 투자 등)는 과감히 완화하고, 환경·1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특정지역에 핵심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도입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신기술분야, 기술융합분야에 대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규율 기능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는 예방한다.

R&D 및 설비투자 감면제도 시한연장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의 아웃소싱 및 네트워킹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 등을 육성한다.

## □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및 시장환경 조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유도, 기업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및 반기업적 사회정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고임금·고지가·고세율·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한다.

### (3) 유관 국정과제와의 연계 추진

◇ 국가균형 발전 및 외국인투자 유치(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와 연계 추진

##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지역클러스터 구축

현재의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적지 조성 및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기술분야 과잉·중복투자 우려와 지역내 연계 미흡문제를 해소한다.

금년말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이 연계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중점 유치대상 기술분야 및 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한다.

\* 미래형 자동차 : Transmission분야, 세계적 부품업체 등  
\* 유기EL : 소자제작기술·구동기술분야, Pioneer·Sanyo 등  
\* 바이오신약/장기 : DDS·바이오센서 기술분야, Amgen·Pfizer 등

현금보조제 도입,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외국인 경영환경 조성 등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수립·추진(8.26) 한다

◇금년말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보완